

대행 스님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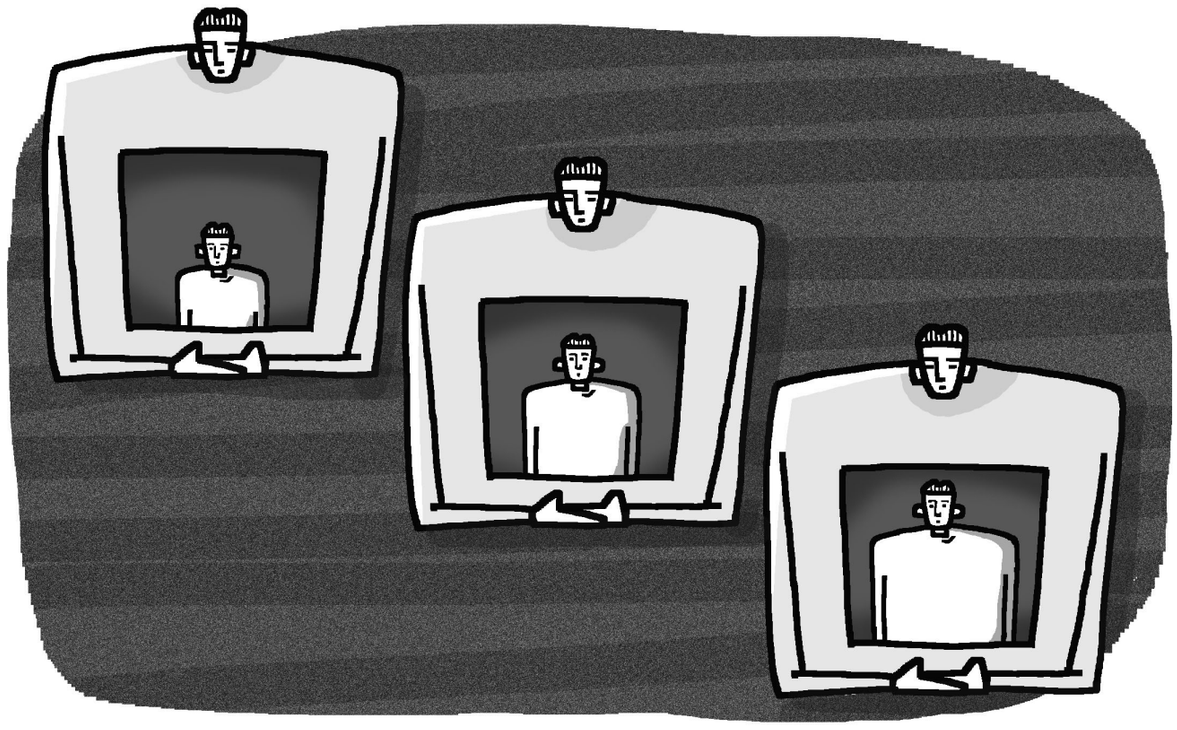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한 자리를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돕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세상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찰나에 백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항상 너그럽지 못하고 항상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선지식들이 주장자를 들고 '초월한 것도 없고 초월이 아니 된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나와 네가 둘이 아니다' 하고 치셨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장자로다가 치는 것만 봤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항상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죠.

그 세 가지를 따져 본다면,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놈도 그놈, 크다고 하는 것도 그놈, 작다고 하는 것도 그놈, 나와 더불어 상대성에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도 그놈, 바로 '나' 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현재로 따져서, 과거 미래 현재로 따져 본다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나조차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찰나찰나에 그냥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일거수일투족 그냥 행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고 듣는 거와 가고 오는 거와 말하는 것도 모두가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찰나찰나에 화(化)해서 돌아가느니만큼 바로 시공이 초월됐다는 말조차 붙지 않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습에 매달리고 습성에 매달려서 그거를 번연히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를 알면서도 몽땅 그 자리에다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이 무효인 것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못살든 잘살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있는 것이 바로 확증이 돼야 내가 스스로 부처고, 내가 스스로 부처니까 내가 스스로 법을 행하고, 내가 법신(法身)이니까 스스로 법을 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항상 끄달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부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내가 한마음으로서 끌어안으면 어떻습니까? 일체제불을 다 끌어안고 삼보에 귀의한다.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한다.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전체, 체가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 체(體)는 내 체요, 법은 내 법이요, 불성, 그 성종은 바로 내 성종이요, 그러니…. 성종이라고 한 게 거꾸로 됐나요? 종성(種性)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 거꾸로 됐으나 바로 됐으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법도, 행하는 것도 모두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일체가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믿는 것도 법이다. 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배우는 것도 우리요, 번뇌를 끊는 것도 우리요, 이루는 것도 우리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갖추어진 청각, 지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이러한 여섯 가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육근이 그냥 행한단 말입니다. 보시다 지계다 인욕이다 정진이다 선정이다 반야다 하는 것도 전부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려 놓고 가닥을 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도리구(道理句)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려 놓은 거를 자기가 가닥을 치지 못하면 어수선산란하기 때문에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이 하는 거니까.' 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시작도 끝도 간단하죠. 모두가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하는 것이고, 그놈이 하는 것이니까 바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쭉 벌려 놓고 아리송하게 이건가 저건가 애쓰지 마시고 몰랐든 알았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걸 막론하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근본 자체는 각자 바로 여기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있으니까 여기에다 다 놓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 고깃덩어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가공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딴 짐승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건지려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건지기 때문에 나 아니 되는 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아픔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도량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또 더불어 같이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있죠, 더불어 같이 수억겁을 통해서 굴러 나왔죠. 그러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이 그냥 초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기 옆댕이에 붙을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차원에 따라서 붙는다, 안 붙는다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항상 '그 간단한 거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하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마는 내가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 이런다고 얘기를 가끔 하죠. 그것이 뭐냐.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금방 아들로 화하고, 금방 남편으로 화하고, 금방 형으로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변해서 금방 나투어서 그냥 딴 걸로 바뀐단 얘기죠. 우리 세상 만사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화하는데 내가 인군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신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생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뭐가 되든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위가 내 위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장공장이 내 장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직장이 내 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척수가 내 척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통틀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한 몸뚱이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나다, 내가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다. 이거를 알면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하고 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게 없고, 내 거다 하고 세울 게 없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했다고 세울 게 없는 자체가 바로 한 개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것을 다 그냥 묵살해 버리고 '모든 거는 당신 자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를 좀 긁적거리다가 내려왔지만, 거기를 보면 "어떤 것이 평등한 여래냐?" 하고

☞ A18면으로 계속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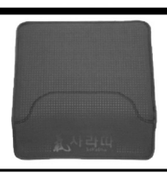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탈종공고

- 법 명 : 성문 (양창선)
- 승려번호 : 9906-10176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 A17면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 평등한 중생들인가?" 하고 물었다면,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봐도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해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론으로만 "너를 먼저 찾아라." 이렇게 했지 진실로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모든 걸 타의에서 구하게끔 해 놨어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다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빼놓는 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 그렇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느 주머니에서 살고 있는지, 또 미래로 가서 어느 주머니로 나오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 백지장 사이를 뛰어넘죠. 우리 마음이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게 없다는 것만, 이 세상 살이가 고정된 게 없어서 무엇을 하든 나라고 내놓을 게 없다는 것만 알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무디게 그냥 얽매이고 애써야 됩니까?

눈물 나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뭘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탄지탄합니까? 인생은 지금 요 모습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데 그 떠 있는 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그 가고 옴이 없는 까닭에 여여하게 가고 옴이 없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의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이 주머니 속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또 다른 모습을 해 가지고, 만날 이 주머니에서 뱅뱅뱅뱅 뱅뱅 몇 생, 아니 세세생생을 돌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세 번을 거푸거푸 태어나야 진짜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간에, 끼리끼리 살던 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습에 의해서.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사람 모습을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는 자체, 바로 자기가 텅 빈 그 자체여서 그냥 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엔 여여하게 그대로, 세상 법이 그대로 즐겁고 그대로죠. 내일 죽든지 이따가 죽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굶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잘 이끌어서, 망하게 가는 길도 스스로 잘 가게 만듭니다. 주인이 있어서 잘 가게끔 하는데 왜 잘 못 갑니까? 믿고 안 믿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진짜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그냥 무조건 있다고 봐야죠, 자기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어떠한 분야든,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체물리학이든 철학이든 다 그 한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분리해서 이런 걸 쓸 때는 이런 걸 쓰고, 저런 걸 쓸 때는 저런 걸 쓰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化)해서 나투면서 쓰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들이고 낸다 할 때, 낼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갖가지 용도대로 쓰지만 들일 때는 한마음으로 들인단 말입니다, 한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소가 하나라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가지각색으로 쓰는 전력이 다 한 발전소에서 나갑니다. 그러는데 전력이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다 무시합니까? 전력은 나가는 게 육안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 그 공(空)한 가운데서 출현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묘법인지, 실천을 해 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아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가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래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제일 최상승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올라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맨 아래 지옥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이 세상에 잘한다고 내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이랬습니다. 돌아다보면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혔는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하니까요,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어디 있어? 내가 나온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물처럼 살고 있는데 그 물이 물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물이 못하는 거 있습니까? 모두 먹여 살리고 있고, 구정물이 들어오든, 흙물이 들어오든, 핏물이 들어오든, 고름물이 들어오든 다 한마음으로 한바다로 해 주고 채찍질을 할 땐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말입니다.

또 아주 맨 밑바닥에 있는 생물까지 살리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한번 뒤집어 놔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맨 밑바닥에까지 태양열이 갈 수가 없죠. 또, 뒤집어 놓지 않으면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연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이고, 나같이만 산다면 걱정 근심이 없을 텐데.' 이럴 겁니다, 아마. 산을 보십시오. 산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산은 그대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어요.

>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해라.

그러니 우리 자체 마음의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육신으로 수행을 한다 하면 몸 떨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고 수행한 거리도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요? 말 잘하는 것도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는 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세세생생에…, 어떠한 물체든지 다 수레같이 바퀴가 돌아가죠.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어느 거든지 중심이 끼워져 있어요. 중심이 끼워져 있으면서 그 중심은 움죽거리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배출해서 바퀴를 구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바퀴는 바로 중심의 심봉에다가, 사람의 근본이 저 심봉이라 하면 그 심봉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맡겨 놓고'라는 언어도 붙지 않죠. 그냥 심봉이 끼워져 있으니까 그냥 바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살림살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심봉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믿고 그냥 하면 되지 거기에 왜 딴소리를 합니까? 딴청을 하고, 딴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금방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껄껄 웃음이 나올 수 있어야 그건 무난히 돌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면 웃음은커녕 얼굴이 찌푸려지고요,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열이 치밀고 이러죠. 내가 그만한 힘이 있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심봉이 그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전체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어떤 용도로 바퀴가 굴러도 아주 서슴없이 그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형제 법우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럽시다. 뭐 별난 질문이 아닙니다.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만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와서 주머니 속에서 다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질문하십시오. 한 분이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다 같이, 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딨습니까? 서로 도반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어서 모든 것을 둘로 보지 않고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진도가 좀 늦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지금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잘되면 같이 기뻐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좀 고치기 힘듭니다.

큰스님 편히 앉으세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걸랑은 '시기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또 즐거운 마음이 생기걸랑은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감사해.'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똑 부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길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댁은 그냥 어느 한 개체의 물건과 같은 겁니다. 로봇 있죠? 로봇에게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할 때는 시키는 누군가가 단추를 눌러서 그 몸뚱이가 움죽거리듯, 지금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런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 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돼서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한들 저쪽에 해로울 것도 없고 잘될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해서 나만 괜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뉘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네가 한 거니까.'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오신통이라는 그 작자가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능력을 한데 합해서 그냥 컴퓨터라고 이름해도 좋다.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니까 그릇이 비더라.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는 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까 완전히 해말갛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현실에 나오는 거를 되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그러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요, 몸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유전성입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냐 적으냐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병들어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원수를 갚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기에 속아서 그 마음을 나오는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 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팔자 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다가 그냥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대로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너 아니야? 화 안 나게 해!' 해도 좋습니다. 그건 장담하죠. 또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 (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문의 :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